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 30. / (총 13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050
담 당 자	김 은 경		043-719-906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1월 30일 오전 9시 현재, 총 244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확진환자는 없었으며, 4명 확진, 199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41명은 검사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나 네 번째 환자의 경우 계속 집중관찰하며 치료가 진행 중이다.
 - 확진환자의 접촉자 387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30일 09시 현재) >

구분	총계	확진환자 ¹⁾	조사대상 유증상자 ²⁾		
			계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3~1.30)	244	4	240	41	199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 중국 우한시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 진행 상황도 발표했다.
- 조사대상자 3,023명 중 중복 입국기록이 있는 32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1,160명, 외국인은 1,831명(총 2,991명)이다.
 - 내국인 1,160명 중 75명이 출국하고 1,085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701명(65%)이 모니터링 중으로 이 중 10명이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이다.
 - 외국인 1,831명 중 1,433명(78%)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체류자는 398명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진단검사 확대 보급을 위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소요시간을 현재의 1/4로 줄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의 검증절차를 완료하여, 1월 31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2월초 주요 민간 의료기관까지 신속검사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식약처 인·허가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 진단검사 방식 변경 안내 >

	1월 30일 이전		1월 31일 부터
방법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 → 염기서열분석 2단계 검사	→	리얼타임 RT-PCR 1단계 검사
소요시간	24시간	→	6시간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사람 간 전파 의심사례가 보고된 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재차 개최한다고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WHO 긴급위원회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선포 등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되,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의 총력 대응체계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의료기관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를 통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고, 의심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일반 국민들도 손 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용어 정의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오해와 진실

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30일 09시 기준)

구분	총계	확진환자 ¹⁾	조사대상 유증상자 ²⁾		
			계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3~1.30)	244	4	240	41	199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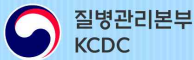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 확진 환자 세부 현황 (1.30일 09시 기준)

연번	확진 일자	우한시 방문여부	발견 경로	현재 상태	접촉자 (387명)	접촉자중 검사결과
1	1.20	있음	검역 (의사환자)	폐렴 (인천의료원)	45명	4명 음성
2	1.24	있음	검역 (능동감시)	양호 (국립중앙의료원)	75명	7명 음성
3	1.26	있음	자가신고	양호 (명지병원)	95명	2명 음성
4	1.27	있음	의료기관 신고	폐렴 (분당서울대병원)	172명	2명 음성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202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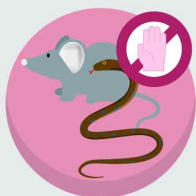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동물
접촉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후, 증상*발생 시

*주요증상: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게시일 : 2020.1.29

붙임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붙임4

감염병 예방수칙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붙임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용어 정의

2020. 01. 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용어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붙임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해와 진실

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 중국에서는 29일 자정 기준으로 7,7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총 88,693명의 밀접접촉자 중 모니터링 완료자를 제외하고 81,947명을 의학적 관찰 중이며, 의심환자는 12,167명입니다.
- 현재(1.30일 12시 기준) 총 감염자 수는 18개국에서 7,810명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치사율은 1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 현재(1.30일 12시 기준)까지 총 7,81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170명이 사망했고, 사망은 모두 중국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7,711명 발생, 170명 사망으로 치명률은 2.2%로 확인되며, 치명률은 유행 정도와 그 나라의 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못 받는다?

-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례정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상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신고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중입니다.

-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4.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씻기입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또는, 손을 통해 눈, 코, 입 등 점막으로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5.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가능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6.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는 소독 후에는 안전한가?

- 확진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 대응에 준해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